



덴마크의 농업인력



정철영
(서울대학교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 농업인력의 변화

덴마크의 농가인구는 1950년대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여, 1960년대에는 매년 약 5,000명 정도 감소하였고,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2,300~2,600명씩 감소하였다 (<표 1> 참조).

덴마크의 농가 수는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농지소유면적에 따라 덴마크의 농가를 분류했을 때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30.0ha 미만의 경지를 소유하고 있는 소농은 지속적으로 뚜렷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1982년에 전체 농가의 69%를 차지했으나 2000년에는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소농이 계속

적으로 뚜렷하게 감소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는 전체 농가의 50% 이상을 점유함으로써, 덴마크에서의 소농의 중요성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경지소유면적 50ha 이상의 대규모 농가는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1982년-2000년에 약 5,000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전체 농가에서의 비율로 볼 때는 1982년 13%에서 2000년 32%로 증가하였다. 중간규모의 농가(경지소유면적 30ha-50ha)는 큰 변화가 없었다. 이와 같이, 현재 덴마크의 농가는 소농의 감소와 대농의 증가로 요약할 수 있으며,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은 46.8ha(1999년)정도이다 (<표 2> 참조).

<표1> 덴마크의 농촌인구 및 농업인구의 변화 추이

(단위 : 1,000명)

구분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9	2000
합계	4,929	5,060	5,123	5,114	5,140	5,228	5,305	5,320
남자	2,446	2,506	2,529	2,519	2,533	2,580	2,624	2,633
여자	2,483	2,554	2,594	2,595	2,607	2,648	2,681	2,687
농촌인구	1,000 (20.3)	920 (18.2)	834 (16.3)	802 (15.7)	783 (15.2)	780 (14.8)	782 (14.7)	781 (14.7)
도시인구	3,929	4,140	4,289	4,312	4,357	4,447	4,523	4,539
농업인구	551 (11.2)	460 (9.1)	358 (7.0)	320 (6.3)	286 (5.6)	240 (4.6)	208 (3.9)	201 (3.8)
비농업인구	4,378	4,600	4,765	4,794	4,854	4,988	5,096	5,119

자료 : FAO(2002), Agriculture, <http://as.fao.org/page/collections?subset=agriculture>

〈표2〉 덴마크의 경지면적별 농지소유농가 변화 추이

(단위 : 1,000가구, %)

구분	1990-1994	1997	1998	1999
5ha 미만	1.2 (1.7)	1.1 (1.7)	0.7 (1.3)	0.9 (1.6)
5-10ha	11.4 (15.5)	9.9 (16.3)	9.3 (16.2)	9.2 (16.5)
10-20ha	17.1 (23.2)	13.2 (21.6)	12.1 (20.9)	11.3 (20.3)
20-30ha	12.3 (16.8)	8.5 (13.9)	7.6 (13.2)	7.4 (13.3)
30-50ha	15.3 (20.8)	10.9 (17.8)	10.1 (17.6)	9.5 (17.0)
50-100ha	12.1 (16.4)	11.9 (19.5)	11.9 (20.6)	11.4 (20.4)
100-200ha	4.1 (5.6)	4.5 (7.4)	4.8 (8.3)	4.9 (8.8)
200ha 이상		1.1 (1.8)	1.1 (1.9)	1.2 (2.2)
계	73.5 (100.0)	60.9 (100.0)	57.6 (100.0)	55.8 (100.0)
농가당 평균 경작면적(ha)	37.2	43.6	45.8	46.8

자료 : Danish Farmers' s Union(2000). Agriculture in Denmark 2000. p.7

농업에 종사하는 경제활동인구를 보면 1970년 266천명에서 2000년에는 111천명으로 58.3%의 큰 감소율을 보이고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앞서 살펴본 농업인구의 큰 감소와 그 흐름을 같이하고 있다. 이를 성별로 살펴보면, 1980년까지는 남성의 농업 종사자 수가 전체의 82.1%까지 증가하였고, 여성은 감소하여 17.9%를 보이고 있으나, 이후에는 다시 남성 종사자 수가 감소하고 여성 종사자 수가 증가하여 1990년부터는 남성이 약 75.5%, 여성이 24.5% 정도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추세와 함께 1990년대 이후로는 여성 농업종사자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꾸준히 전개되어 오고 있다.

■ 농업인력 정책

덴마크의 농업인력에 대한 정책은 기본적으로 농업법(Agricultural law)에 기초하여 이루어진다. 농업법은 “가족중심의 농업과 양질의 토지를 유지하며, 토지의 경작, 소유, 임차, 환경 등에 대하여 규제를 부과함으로써 가능한 최상의 방법으로 농업에 관한 모든 사항을 조정”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덴마크의 모든 농장은 매매에 의하여 거래되는데, 농업법에 따르면 30ha 이상의 농장을 구입하기 위해서는 농장을 책임지고 경영하는 능력을 갖출 수 있도록 5년간의 정규적인 훈련을 받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 원칙적으로 덴마크 정부 당국은 농민들의 농장 또는 가옥임대에 관하여 최소한의 규제 역할을 행하게 되는데, 대신 농민들은 해마다 당해의 총매출액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2ha 이상의 토지는 경작지로 개간되어야 함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경작지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경작지로부터 일정한 범위 내에 거주해야 함을 규정함으로써 소유주가 직접 농업에 종사하도록 하고 있다.

■ 농업인 교육훈련

실습과 이론을 겸비한 덴마크의 포괄적인 농민 교육은 이미 1세기를 더 넘는 오랜 전통을 이어오고 있다. 덴마크에서는 30 헥타르 이상의 농지를 매입하거나 또는 영농자금을 대출 받거나 유망한 농민에게 지원하는 농민후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그린카드, 즉 농업 경영인 및 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해야 한다.

직업 농민이 되기 위해서는 분야가 각기 다른 농가에서 이론과 실기를 겸한 최소한 30개월 이상의 실습 기간을 거쳐야 하는데 이 기간 중 최소한 6개월은 축산 농가에서 그리고 다음 6개월은 작물 재배 농가에서 실습을 하며 나머지 기간은 여타 농업분야에서 실습과정을 완료해야 한다. 실습은 주로 겨울철에는 축산농가에서 그리고 봄철에는 작물재배농가에서 실시되는 것이 관례이다.

덴마크 농민의 대다수가 해외견학과 해외 실무경험을 쌓는가 하면 농민 조합에서 자체적으로 주선하는 연수프

로그래에 참가하여 직업 농민으로서의 전문을 넓힌다. 덴마크 농민들은 농민의 생활을 선택함과 동시에 환경, 가족과 인간 사이에 존재하는 책임감을 모두 느껴야 하는 사고방식도 선택하게 된다. 농민들은 새로운 지식이 요구 될 때마다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가로부터 재교육을 받는다. 전국의 28개 농업학교 중 3개 학교에서는 현직 농민들의 재교육만을 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지속적인 농민 재교육은 농민 교육위원회와 농업학교의 협력 하에 이루어지며 연간 평균 6천명의 현직농민들이 3~6일 간에 걸친 재교육을 받는다. 약 9천여명이 이를 동안 진행되는 거름과 약제 취급법 적용에 관한 교육을 받고 이 중 약 500여명의 수강생들이 거름 및 약제 살포 면허증(허가증)을 취득하게 된다. 덴마크에서는 거름 및 약제 살포 면허증을 취득한 농민만이 자신의 농지와 타 농가의 농지에 이러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있다.

농민 재교육 등 현직농민 육성 교육의 주된 내용은 새로운 기술 적용 및 생산 방법과 수익성이 높은 작물 또는 흥미로운 작물의 생산법 등에 있다. 교육기간은 단기와 장기로 나뉘어져 보통 8~16명의 농민이 한 조가 되어 각자의 의견과 실무 경험을 교환하면서 공동 해결 사항을 토론하며 전문가와의 토론회 연구도 이루어진다. 재교육을 받는 기간 동안 수강 농민들은 정부보조금으로 교육비용을 충당하며 휴업 수당도 지급받는다.

코펜하겐 근교 프레드릭스보그에 위치한 “왕립수의농과대학”은 1856년에 설립되어 연간 많은 농업 연구원과 농업지도자들을 배출하고 있다. 이 농과대학은 특히 세계적인 농업기술 연구센터로 명성을 얻고 있다. 농학자 교육과정은 4~5년 정도 걸리며 재학생의 대부분이 농장에서 실력을 든든히 쌓은 실무경험자들이다.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농업부문의 정규직업훈련은 기술학교가 제공하는 직업보조원, 가족보조원, 양어장보조원, 농기계작공 분야가 있으며 각 분야의 훈련과정이 다수 있다. 농업훈련의 전문분야에는 농업훈련기간은 3년 8개월이다. 실제 농업훈련은 기술학교에서 하지 않고 30개의 농업학교에서 실시된다. 1991년 1월 농업학교가 교육부로 이전되어

지금은 기술학교와 같은 직업학교가 되었다. 농업훈련은 직업훈련에 대한 일반 조항의 영향을 받지 않고 특별법에 의해 규정된다. 다른 직업학교와 마찬가지로 농업학교도 농업과 식품부문 내에서 밀접한 관계의 직업훈련을 제공할 수 있다. 농업학교는 직업학교를 위한 정규조성금제도를 가지고 있어 정액교부금을 받으며 이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다.

농업훈련과정은 기존의 고유구조와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 그 과정은 학교의 8주 입문기간 (introductory period)을 포함하여 학교학습과 실무경험의 산학협동 훈련으로 구성된다. 기초농업훈련과정은 초등 및 하급 중등 학교의 9년차에 기반을 둔 청소년훈련으로 이어지며 다른 직업훈련과정과 같이 일반과목으로 구성된다. 이 훈련과정에 대한 입학금은 없으며 학교의 선택도 자유롭다. 새로운 계획에 따른 학교와 훈련에 대한 총 비용은 연 2억 DDK로 예전과 같은 액수이다. 농업학교의 훈련생 수는 매년 3,500명으로 2,500명은 기초농업훈련과정에서 그리고 1,000명은 계속훈련 과정에서 교육을 받는다.

■ 농업관련 자격증

농업학교의 기본적인 훈련교육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농업관련 회사나 심화과정에 들어가도록 하는 자격을 부여한다. 이 프로그램은 3년 6개월 과정으로서 대학이나 실제 훈련장에서 받을 수 있으며, 3년의 과정을 기본으로 하여 농업관련 회사에서의 실습기간과 병행하여 진행된다.

농업학교에서 수여하는 자격증에는 ‘Product Manager (Green Certificate)’ 와 ‘Work Manager (Green Diploma)’ 및 ‘Agricultural Manager’ 의 세 종류가 있다. Product Manager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24주 동안 과정을 이수한 뒤 일정한 자격에 도달하게 되면 자격이 수여된다. Work Manager 자격은 Product Manager보다 12주 이상의 과정을, 즉 36주 이상을 이수해야 하며, 만약 위 두 가지 과정을 병행하여 이수하여 총 60주의 과정을 모두 이수하여 일정 자격조건을 만족하였을 경우에는 ‘Agricultural Manager’ 의 자격이 부여된다.